10.15686/fkl.2026..67.106

열대 모더니티와 끈적거림의 정동
-『바캉스 소설』의 공간 정치학

박윤아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1 끈적이는 열대의 입구
2 트로피컬 모더니티
3 끈적이는 유령
4 로베스피에르와 마녀
5 세상의 끝

국문초록

열대의 습기와 열기, 냄새와 색채가 몸의 표면에 달라붙는 순간, 『바캉스 소설』의 공간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감각과 욕망이 조직되는 장으로 드러난다. 본고는 이러한 열대 공간을 식민적 관광 자본주의가 구축한 '트로피컬 모더니티'로 파악하고, 그것이 여성의 욕망과 충동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배열하려는 장치로 작동함을 밝힌다. 그러나 이 질서는 열대성의 침습과 끈적거림의 정동, 그리고 유령의 출몰 앞에서 끝내 완결되지 못하고 내부에서 균열을 드러낸다. 감각의 조직이 무너진 자리에서 정동은 사라지지 않고 불안과 공포, 분노로 굴절되며 범람하고, 세계는 더 이상 안정된 의미 체계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때 여성의 몸은 감각과 정동이 교차하는 접촉면으로서 질서의 파열을 감각하는 장소이자, 통제 이후에도 남아 지속되는 정동의 흔적을 드러내는 매개가 된다. 결국 『바캉스 소설』은 욕망의 통제가 실패한 이후에도 세계가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정동의 흐름 속에서 사유하도록 요청하는 텍스트로 읽힌다.

국문핵심어: 열대성, 트로피컬 모더니티, 끈적거림, 정동적 공간, 세상의 끝, 유령, 욕망

1 끈적이는 열대의 입구

기후위기의 결과로 열대성 기후가 된 근미래의 제주도라는 배경을 통해 종말론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는 김사과의 『바캉스 소설』[1]은 즉흥적 충동과 자연스러운 정서의 방출을 배척하고, 이성에 대한 강요와 충동 조절의 현상을 낳게 되는 현시대 피로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기후위기의 모티프를 앞세워 자본주의 현실의 비극적 단면에 대한 폐허의식과 허무의식을 드러내는 『바캉스 소설』의 문제의식은 에코페미니즘과 만나 인류세(Anthropocene)의 기후 재난이 인간의 지배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로부터 기인한다는 생태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1 김사과, 『바캉스 소설』, 문학동네, 2023.

하지만 본고는 명료하게 언어화가 가능한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김사과가 창조한 '사이'의 열대 공간에서 불온하게 유동하는 정동과 그 중심에 자리한 여성의 '몸'을 고찰하고자 한다. 『바캉스 소설』에서 열대는 단순한 자연적 배경이나 이국적 풍경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습도와 온도, 냄새와 색채와 같은 감각들이 신체의 표면에 작용하며 형성되는 정동적 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감각적인 배치는 인물들의 욕망과 관계를 조직하는 동시에 그 질서를 교란하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다.

김사과는 그동안 21세기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정동적 구조에 주목해온 작가이다. 김사과 소설의 인물들은 도시 공간을 배경으로 갈 곳 잃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형상으로 제시된다. 김미현의 연구는 '탈감정사회' 논의[2]를 기반으로 김사과의 분노 3부작 중 첫 장편소설인 『미나』에 등장한 어휘소들을 분석하여 김사과 세계에서 분노가 촉발되는 정념적 구조를 분석했다. "계몽주의적인 봉합이나 휴머니즘적인 애도를 통해 어설프게 도덕이나 윤리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는 이이제이의 저항"을 통해 역설적으로 분노와 폭력을 통한 윤리적 저항을 보여주는 작가라는 그의 분석은 김사과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3]

『바캉스 소설』은 김사과 문학의 기존 경향을 계승하면서도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 소설은 도시 공간을 벗어나 기후위기 이후의 열대 환경을 전면화함으로써 정동이 작동하는 조건 자체를 재구성한다. 다시 말해 분노와 폭력의 정동이 더 이상 사회적 억압의 직접적 반응으로만 제시되지 않고, 감각과 환경, 신체와 비인간적 요소들이 얽히는 장 속에서 새롭게 조직되고 변형된다. 이러한 점에서 『바캉스 소설』은 김사과 문학 내부에서 정동의 작동 방식이 이동하는 전환점으로 읽을 수 있다.

『바캉스 소설』은 기후위기로 인해 열대화된 제주도를 배경으로 자본이 조성

2 '탈감정사회(postemotional society)' 논의란 신자유주의 또는 소비자본주의가 감정의 소비적 과잉 생산을 통해 냉소를 확산시키고 그를 통해 체제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담론이다. 스테판 G. 메트로비치, 박형신 역, 『탈감정사회』, 한울, 2014, 12쪽.

3 김미현, 「분노의 문학과 정념기호학-김사과의 『미나』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44호, 한국기호학회, 2015, 87쪽.

한 인공적 낙원 '시타 델 마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서사의 중심에는 서울에서 우울증을 겪던 여성 이로아가 있으며, 그는 제주도로 이동한 이후 관광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향락적 공간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열대 제주'라는 바캉스 상품은 자본주의가 제주도라는 지역을 타자화하고 식민화한 결과 재현된 인공 자연이며, 실제 제주도에는 자본가들이 조성한 질서가 봉합하지 못한 잔여들이 여전히 넘쳐흐르고 있다. 이러한 작품 세계의 확장은 "모든 게 망가졌는데 왜 아무것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지를 집요하게 질문하고, "이 세계는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쪽으로' 나아갈 여지가 남아 있다"[4]고 내비쳤던 지난 장편소설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하지만 『바캉스 소설』에 이르러 김사과는 보다 직접적으로 '적'을 지목하고 등장인물들의 분노에 방향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분노하는 주체가 주변 인물들을 산발적으로 상처입히는 '지옥'을 묘사하던 이전 작품들과 달리, 『바캉스 소설』에서는 여성 인물들 사이의 연결의 가능성과 함께 체제의 질서를 정지시키는 새로운 탈출구가 언뜻 드러난다.

그리고 요트와 '블랙 서커스'에서 벌어지는 파티와 난교, 마약과 소비가 결합된 감각적 경험 속으로 진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은 해방의 장소라기보다 감각과 욕망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김사과는 지방을 향한 자본주의의 공간 침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의 현전을 '트로피컬 모더니티'[5]의 풍경으로 그린다. 건축, 여행 및 상업적 패키지에 얽힌 광범위한 혼합물로서의 제주도는 자본주의의 증식이 초래한 기후 위기마저 자본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주의의 악마적 욕구와 폭력성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불러온 열대성 기후 위에 세워진 흉물스러운 모더니티의 '실버 샌드'와 범죄의 온상으로서의

4 김사과, 『더 나쁜 쪽으로』, 문학동네, 2017.

5 이는 자본 질서가 구축한 '트로피컬 모던'이 아니라 '대미술가 도미니크 곤잘레스-포에스터의 '트로피컬 모더니티' 개념을 따른다. 곤잘레스-포에스터는 모더니티와 열대라는 이질적 장소성이 충돌하는 혼성적 공간으로 '트로피컬 모더니티'를 묘사하며, 브라질의 이국적인 도시풍경 대신 기후와 무성하게 자라는 열대식물로 인해 침식되고 잠식되는 '트로피컬 모더니티' 풍경을 통해 21세기에 도래한 기후 디스토피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박지아, 「도미니크 곤잘레스-포에스터의 '트로피컬 모더니티(Tropical Modernity)'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6쪽.

도시국가를 꿈꾸는 자본가들의 환상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열대의 숲은 자본에 포섭되지 않는 잔여로서 존재한다. 오히려 폭우와 범람이라는 기후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열대성은 자본의 계획을 초과하며 역으로 '매끈한' 모더니티의 질서를 침습하고, 열대 제주도 전체에 내려앉은 끈적거림의 형태로 감각되는 불온한 공기는 발전주의 도시 계획과 관광 자본주의의 억압과 폭력의 특성을 드러낸다.

자본주의-가부장제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 김사과가 그린 열대 제주도의 풍경은 인간이 지질학적 행위자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급변하기 시작한 인류세의 현실이다. 김사과의 사실과 허구, 꿈과 환상이 뒤섞인 서사는 범람하는 도시와 열대 이미지들을 충돌시키고 그 틈으로 시급한 요청을 틈입시킨다. 트로피컬 모더니티의 공간에서 자연은 개발과 관광, 노동의 착취가 뒤섞인 강제적 혼합의 장이며 역으로 침수와 해일, 열대우림화를 통해 모더니티를 침습하는 역동성을 잠재하고 있는 디스토피아의 강렬한 예감이다.

서사의 전환점은 제주 출신 여성 은소라의 죽음과 그 유령의 출현이다. 은소라는 자본 권력에 의해 은폐된 폭력의 희생자이며, 그의 유령은 반복적으로 이로아 앞에 나타나 억압된 기억을 현재로 호출한다. 이렇듯 김사과의 소설은 바로 이 강제적 혼합이 빚어낸 충돌과 그 징후로 드러나는 돌연변이적 변형들을 수렴한다. 열대라는 장소성에서 일어나는 균열과 변형은 서구 규범적 모더니티가 강요해온 통제의 방식을 정지시키고, 김사과가 열대를 현실 전복과 생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공간으로 사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아는 은소라의 죽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우울과 분노, 욕망과 마주하게 되고, 결국 자본 권력의 중심 인물을 '심판'하는 행위에 이른다.

이렇듯 김사과 소설에서 '열대'는 단순한 자연환경이나 배경이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습도, 색채, 공기, 빛, 냄새와 같은 감각적 요소들이 몸의 표면에 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정동적 장(場)에 가깝다. 따라서 김사과 소설에서 열대는 다양한 감각들이 서로 얽히고 흐르며 형성되는 감각적 분위기로 나타난다. 김사과 소설에서 열대 공간은 개별 사물이나 사건의 의미보다 다양한 감각과 이미지들이 동시에 분출하는 흐름 속에서 구성된다. 열대의 감각 요소들은 서로 분리된 채 존재하기보다 연속적으로 연결되며 움직인다. 그 결과 열대 공간은 안정된 의미 체계로 조직되는 장소라기보다 감각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역동적인 장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은 '열대적 분위기'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사과 소설에서 나타나는 감각, 아우라, 분위기는 상징적 공간이 아니라 감각과 정동을 발생시키는 수행적인 공간의 요소로 이해된다. 결국 『바캉스 소설』에서 여성의 몸은 서로 다른 장소성과 감각이 교차하는 접촉면을 형성하며 기존의 질서와 경계를 흔드는 매개로 작동한다.

기존 한국문학 연구에서 모더니티는 주로 식민지 경험과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중요한 성과를 축적해왔으나, 기후위기와 비인간적 환경이 인간의 삶을 재구성하는 동시대적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공간은 여전히 사회 구조의 반영이나 배경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며, 감각과 정동, 신체를 통해 구성되는 공간의 물질적 차원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본고는 『바캉스 소설』에 나타나는 열대 공간을 감각과 정동이 조직되고 실패하며 굴절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트로피컬 모더니티가 감각과 욕망, 특히 여성의 욕망과 충동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조직하려는 방식과, 이러한 시도가 열대성의 침습과 유령의 출몰, 끈적거림의 정동을 통해 실패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실패 이후 정동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넘치며 불안과 공포, 분노의 형태로 굴절되는 과정, 그리고 이로부터 '세상의 끝'이라는 상태가 도래하는 양상을 하나의 연속적인 구조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바캉스 소설』이 감각과 욕망을 조직하는 자본주의적 모더니티의 방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조직이 완결되지 못하고 내부에서 균열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 작품이 제시하는 정치적 가능성이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데 있다기보다, 욕망의 통제가 실패한 이후 범람하는 정동의 상태 속에서 감각과 욕망을 조직하는 질서의 리듬을 교란하고 어긋나게 만드는 데서 발생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2 트로피컬 모더니티

『바캉스 소설』에서 트로피컬 모더니티는 단순히 열대적 이미지와 현대적 공간이

결합된 풍경이 아니라, 감각과 욕망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자본의 장치로 작동한다. 이 공간은 감각의 과잉과 자유로운 쾌락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욕망과 충동의 흐름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길들이고 반복시키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문제되는 것은 감각 일반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과 충동,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정동의 흐름이 어떻게 포획되고 조절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트로피컬 모더니티가 감각과 욕망을 조직하는 방식, 그리고 그러한 조직이 어떠한 조건에서 실패하며 균열을 드러내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바캉스 소설』은 근미래 열대 기후 위기가 닥친 제주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김사과 특유의 감각적인 묘사로 그려진 이 소설은 열대 식물과 물이 정적으로 구성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다. 하지만 호텔 체인의 위용과 금발 머리, 반바지 수영복과 맨발의 백인 남자 등 과잉된 부를 전시하듯 서구 자본화된 풍경들이 시선을 압도한다. 김사과는 열대 제주를 싱가포르 같은 독립 도시국가로 일구겠다며 개발에 혈안이 된 인물들, 개인의 부와 쾌락을 좇으며 가속하는 인물들을 통해 끝없는 욕망으로 타인을 무너뜨리는 세태를 묘사한다. 제주의 일개 지역 공무원이 호화 요트를 몰고 고가의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은 지방 권력과 결탁한 거대 자본의 유착과 그 이면에 가려진 악마적 욕구들을 마치 몽상처럼 흐르는 이미지를 통해 흐르게 한다. 김사과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본가들의 무한 증식의 욕구와 식민주의적 폭력성을 제주도에 지어진 건축의 도시적 이미지를 통해 표출한다. '실버 샌드'의 매끈한 표면과 '시타 델 마레'의 휴양지로서의 건축 설계는 자연을 자본화하고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자본가들의 도시 계획을 노정한다.

> 그곳은 정글처럼 수풀이 우거진 산책로와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영장 사이사이 몸을 숨긴 풀 빌라들, 가득 쌓인 택배 상자처럼 불규칙한 패턴으로 세워진 서비스 아파트 단지, 산책로 너머 포복하듯 낮게 깔린, 불시착한 외계 탐사선을 연상시키는 매끈한 은빛의 쇼핑몰을 갖춘 초대형 리조트였다. 뿐만 아니라 덩굴식물에 뒤덮인 길고 긴 회랑의 끝에 나타나는 유리로 지어진 미술관은 어느 은둔 부자의 광활한 개인 정원 한편에

지어진 유리온실을 연상케 했다. 미술관 앞 펼쳐진 원형 광장에는 늪지대를 옮겨온 듯 이국적인 식물들로 채워진 인공 연못이 있었고, 연못을 따라 늘어선 값비싼 조각품들은 제국의 몰락 후 정원 한구석에 버려진 채 우아하게 녹슬어가는 보물 같았다.[6]

김사과는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이면으로 전쟁, 기후 위기, 제재받지 않는 다국적 기업의 신식민주의, 세계의 극단적 획일화 등을 제시한다. 이곳은 자본주의의 증식이 자연을 집어삼키는 현상과 끊임없이 확장하는 도시성을 열대 공간에 대한 모더니티의 공간적 침입 현상으로 나타낸다. 서구 모더니티를 모방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욕망은 제주도를 마약과 국제 범죄가 횡행하는 제2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고자 하는 국제도시 개발 계획으로 형상화된다. '시타 델 마레'는 사방의 유리벽 등 모던하고 기능주의적인 건축 요소가 열대풍 야자나무나 덩굴식물과 같은 열대성의 자연물을 품고 있는 이질적인 모습을 통해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강제적 혼합의 결과물로서 식민주의적 사회가 지닌 폭력성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식민화는 초국가적 자본에 의한 세계화, 그리고 지방의 공간적 재편성을 의미한다. 서구 모더니티의 유입은 강제적인 표준화를 지속시키는 자본주의 시장의 메커니즘이기도 하다.[7]

본래 이로아는 스스로를 자본가의 노예로 지칭할 정도로 현대 사회와 서구적 정체성에 충실히 살아갔던 여성이다. 그녀는 지배 권력/이데올로기와의 복종의 관계 속에서 주체화를 시도했지만[8] 글로벌 자본이 지배하는 삶의 영역에서 주

6 김사과, 앞의 책, 2023, 81쪽.

7 모더니즘 건축의 절정으로 찬양되는 국제주의 건축은 어느 곳에나 동일한 건축과 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로 인해 공간 본연에 대한 사색은 건너뛰고 모든 터를 동질적으로 획일화한다. "맨하튼, 싱가포르, 여의도, 홍콩과 같은 도시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취하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공간의 차이성은 폐허화되었다." 이종관, 『공간의 현상학, 풍경 그리고 건축』, 성균관대출판부, 2012, 158쪽.

8 주디스 버틀러는 주체가 권력과의 복종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주체성은 권력과 법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이며, 복종은 행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버틀러가 주장하는 복종의 역설적인 의미는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인 동시에 권력에 종속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곧 복종의 역설은 주체화의

체가 될 수 없었으며 그 실패로 인해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고통과 절망의 기억이 축적된 신체를 현대 의료-약물과 자본의 힘으로 망각하게 하는 도시는 계속해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보편적 질서에 통합되기를 요구한다. 이때 우울증의 지속은 자본이 인간의 삶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절망인 한편, 자본이 인간을 예속화하고 그 지배를 영속화하는 원천으로 작동한다.[9]

김사과는 자본 권력이 지배하는 시공간 속에서 여성의 육체가 우울의 색채로 물들어가고 정동이 축적된 끝에 약물과 소비 중독의 늪에 빠져드는 과정을 묘사한다. 존재 능력이 저하된 우울증의 신체는 억압적이었던 일상 리듬과의 불협화음이 이로아의 몸에 접착되어있음을 설명하며, 폭력의 시대가 선사한 정동 장애의 구현이다. 자본주의 세계에 압제된 현대 여성의 몸을 정동 장애를 겪는 몸, 존재 능력이 저하된 유령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되기의 실패는 의식의 미로와 직결되며, 무인도에 유배된 사람처럼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결국 이로아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예의 삶을 탈출하기로 결심하지만, 그 실천은 이라크-이란 전쟁을 예측하는 주식 매매라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죽음마저 자본화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낸 '탈출'은 이로아에게 '운명'으로부터는 벗어났음에도 결코 '주인'은 될 수 없는, 정작 그토록 원하던 '자유'로부터는 멀어졌다는 예감을 남긴다. 이 죄책감과 허무감은 이후로도 서사 내내 이로아가 자본 질서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존재로서 남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로아가 고통스러웠던 서울을 떠나 도착한 곳은 담당 정신과 의사였던 양은영이 추천했던 대로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으로서의 "섬"이었다. 인류세의 위기에서 도래한 기후 위기마저 자본화하는 도시 계획은 제주도를 휴양지로서의

역설이라는 것이다.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한국학술정보, 2007, 220-222쪽.

9 "곧 뤼카스 휘스먼이 상황을 간파했다.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기에 그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건강해져 있었다. 그녀는 노예 수용소에 어울리지 않는 생기 넘치는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동료들을 흔들어놓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즉시 중단되어야 했다." 김사과, 앞의 책, 2023, 61쪽.

열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날씨가 화창한 열대 공간에 갓 도착했을 때의 이로아가 본 것은 "전혀 한국 같지 않았고, 차라리 동남아의 어느 휴양 섬을 닮아" 있고, "대부분이 백인으로 (……)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로 섬이 가득"한 이국적인 풍경이었다.[10] 백인 관광객들로 가득한 휴양지로서의 제주도는 자본주의 무한 증식의 현장이자 열대 공간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는 공간이자, 여행객들로 하여금 사회적 자유와 비규범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사치와 향락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바캉스 소설』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열대 공간과 그것들을 차단하는 실내를 오가며 느끼는 끈적거림과 건조함의 감각을 대조시킨다. 이로아가 처음 제주도에 도착해서 느낀 인상은 "오직 끝없는 여름"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여름의 세계"다. 그것은 현실의 기후가 아니라 '바캉스' 상품으로서 현실의 어느 순간을 절취하여 조성한 리조트 타운의 시공간이다. 특정 시간과 공간의 재현으로서 리조트의 '여름'은 흘러가는 현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정박한 인공물로 존재한다.

기후 위기가 도래한 제주도 위에 조성된 '시타 델 마레'의 도시 계획은 일종의 트로피컬 모더니즘의 풍경을 조성하고 있다. '열대성'과 '모더니티'의 상호 융합을 드러내는 수영장에는 물, 음악, 빛, 야자나무와 같은 오브제를 설치하여 도시의 쾌적함과 열대적 풍부함이라는 특성을 가시화한다. 트로피컬 모던은 열대 지역의 장소적, 기후적 특성을 살리고 서구적 요소가 절충되어 현대적으로 표현한 양식[11]이기에 혼종성(混種性)이 핵심이다. 하지만 리조트의 '트로피컬 모던'은 열대 지방의 현대 건축가들이 추구한 '트로피컬 모더니즘'과는 거리가 있다.[12]

---

10 김사과, 위의 책, 2023, 83쪽.

11 본래 트로피컬 디자인은 적도를 사이에 둔 남북 양회귀선(위도 35° 27') 간의 지대인 트로피컬 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성을 가리키며, 그중에서 트로피컬 모던(Tropical Modern) 양식은 열대지역 건축가들이 현대적인 모던스타일과 열대 지방의 장소성을 조화시킴으로써 유럽 식민지 시기에서 나타난 공간 디자인을 변용하여 수용한 역사적인 맥락이 존재한다. 한아름, 「『트로피컬 모던』 리조트 디자인에 공간 디자인 특성 및 표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2-30쪽.

12 열대 모더니즘(Tropical Modernism)은 규범적인 서구 모더니즘의 형식을 열대 지역의 기후와 문화구조의 맥락 안에서 조화롭게 융합시키고자 한 이상적 패러다임이었다. 최미옥, 「제프리 바와 '트로피컬 모더니즘' 건축을 통한 현대 건축의 미래지향」, 『한국문화공간

『바캉스 소설』이 그리고 있는 '시타 델 마레'에 제주도의 역사성은 누락되어 있으며, 제주도민의 흔적은 희생자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제주도의 역사를 삭제하고 특산물, 사치품을 배치한 '시타 델 마레'의 공간은 인공 열대를 조성하려는 관광 자본주의가 남성-문명-제국이 여성-자연-지방을 타자화하는 오랜 역사적 도식의 식민주의이자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타 델 마레'는 자본주의의 도피처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것은 자본주의적 행복을 관리하고 재생산하는 장치로서, 합법적인 '일탈'의 감각을 제공하고 여행객들을 자본의 논리에 한층 더 옭아맴으로써 자본의 질서를 강화한다. 제주도에 박리된 열대지방성은 휴양지의 열기와 에어컨의 쾌적함을 통해 이국성(exoticism)의 표상과 느낌을 판매하는 관광 자본 상품이다. 이러한 감각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며, 일정한 패턴 속에서 반복된다. 즉, 이 공간에서 감각은 자유롭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조직된 감각의 회로 안에서 작동한다. 톡톡 튀고 화려하며, 역동적인 환락의 경험을 생산하는 열대 이미지들은 자본이 열대 제주도를 이국적인 세계로 구조화하는 카니발 장치로서 야자수와 같은 녹색 잎, 코끼리라는 열대 동물, 습기와 열기로 둘러싸인 리조트를 통해 성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정동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 안에서 관광객들은 '시타 델 마레'에 의해 "오직 느낄 것. 느낌만을 따르고 그것에 복종할 것"[13]을 명령받는다.

특히 '블랙 서커스'는 이러한 감각의 조직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김사과는 공간을 묘사함에 있어 화려한 색채 이미지들을 사용하는데, '블랙 서커스'는 자본이 감각과 욕망을 조직하는 방식이 가장 극단적으로 가시화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감각은 자유롭게 분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고 반복되는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블랙 서커스는 욕망과 충동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길들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각의 조직은 열대의 끈적거림과 유령의 출몰이라는 예기치 않은 요소들에 의해 끊임없이 교란된다.

건축학회논문집』 제91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25, 15-54쪽 참조.

13 김사과, 앞의 책, 2023, 80쪽.

이때 공간의 색채가 자아내는 감각은 성적 행위와 결합하며 환상적 감각을 내뿜는다. '에메랄드 빛'과 '보랏빛', '핑크색' 색채는 이국성을 상징하는 '페르시안 카펫'과 '코끼리'와 결합하여 야릇하고도 성적인 생명력을 부여한다. 그중에서도 코끼리는 축제의 열기를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상관물이며, 식민지적 시선에서 포획된 자연이자 길들여진 '괴물'이다.[14] '서커스'는 여성들을 환상과 환락의 이미지들의 파도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그것은 일탈과 해방의 공간이 아니라 감정이 조직되고 관리되는 장에 가깝다. 색채와 조명, 열대 기표의 과잉은 단순히 공간을 심미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특정 방식으로 유도하는 통제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트로피컬 모더니티는 욕망과 충동의 흐름을 감각적 과잉과 쾌락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관리 가능한 상태로 길들이려 한다. 다시 말해 자본은 파국의 감각을 억압하거나 은폐하는 대신, 그것을 소비 가능한 경험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감각의 방향을 통제한다. 이때 감각은 불안을 제거하는 장치가 아니라, 불안을 다른 형태로 순환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 신해남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로아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어 다시금 양은영과 구소라가 키스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정석의 모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석의 주위는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로 가득찬, 사방이 검은 천막으로 가려진 그 거대한 원형 공간은 서커스장이었다.
>
>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 천장은 중앙이 뾰족하게 높았으며, 넓게 펼쳐진 원형 스테이지 주위로 보라색 패브릭 소파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

14 코끼리는 고대 로마 개선식에서부터 이국성과 제국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동원되는 '이국적 스펙터클'이었다. 16세기 오스만의 동물 카니발에서 동물들은 웃음, 경이, 공포를 동시에 유발하며 질서의 일시적 전도와 술탄 권력의 재확인을 수행한다. 동물은 카니발적 혼란의 주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된 혼돈 속에서 권력의 중심을 강화한다. Ido Ben-Ami, "Emotions and the sixteenth-century Ottoman carnival of animals", *Interspecies Interactions*, London: Routledge, 2018, pp.17-33.

었다. 귀가 먹먹해지도록 시끄러운 음악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귀가 먹먹해지도록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흐느적대거나 여기저기 나체로 엉겨붙어 있었다. 원형 스테이지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에메랄드빛의 페르시안 카펫 위에 앉아 있는 회색 코끼리가 보였다. 아직 덜 자란 티가 나는, 약 2미터 남짓한 키의 귀여운 아기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사람들이 건네주는 과일 조각을 받아 먹었다. 나체로 코끼리를 껴안고 몸을 비비는 사람들도 보였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이로아가 멈춰 섰을 때, 누군가의 부드러운 팔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다. 구소라였다.

완전히 취한 듯해 보이는 구소라는 또다른 취한 여자와 함께였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양은영이었다. 양은영은 웃는 얼굴로 이로아를 향해 담배 연기를 뿜었는데, 이로아를 전혀 모른다는 태도였다. 이로아가 뭐라 말을 붙일 새로 없이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코끼리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코끼리 옆에 나란히 앉아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로아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양은영이 구소라의 티셔츠를 벗기기 시작했다.[15]

이때의 열대는 규범이나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감흥만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범죄 소굴로 공포와 불안을 자아내는 암흑의 열대 제주지만 자본은 그 진실을 숨기고 자유로운 환락의 장소, 낙원(paradise)의 형상으로 재구성한다. 이는 열대 공간의 활기찬 정동을 조직하여 환락의 유토피아를 창조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도시 계획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열대 제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와 바닷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로지 흑과 백, 핫핑크, 붉다 못해 피가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노을, 번쩍이는 조명 같은 것이 눈앞에 섬광처럼 지나간다. 보름달마저 "짙은 핑크빛"을 내뿜는[16] 열대 공간은 "해송과 삼나무 숲"은 일찍이 사라지고 "강가 양편에 거대하게 자라난 몬스테라 잎사귀들이 달빛을 받아 흉측

15 김사과, 앞의 책, 2023, 148-149쪽.

16 김사과, 위의 책, 2023, 11쪽.

한 가면처럼 빛"난다.[17] 이처럼 "초현실주의적"인 열대의 달빛은, "고요한 호수 가득 떠 있는 빅토리아 수련의 거대한 잎사귀들을 비추고" 그녀들은 그 속에서 키스를 나눈다.[18] 열대의 "달빛을 받은 몸의 생명체들의 자태는" "선정적"이어서 "시선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흥분감을" 자아낸다.[19] 이어지는 열대 이미지들의 애무는 무엇인가가 익어 터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성숙의 몸부림을 만들고 내면의 파동과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열대 공간은 비밀스럽고 금기시되는 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능하게 하는 열대의 이미지를 통해 관능적인 것을 넘어 광기에 가까운 분위기로 나아간다. 에로스에 도취된 몸은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닌 뜨거운 열대의 공개적인 장소다. 명목상 문화공간이라는 '블랙 서커스'에서 벌어지는 난교는 도시의 사적 공간이 주는 폐쇄성과는 다른 느낌을 제공하며, 특히 요트에서 벌어지는 광란의 파티는 열대 향기와 풀숲이 무질서하게 우거져, 음영을 지닌 가림막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각하게 한다. 감흥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질성은 일상 규범과 불화하는 욕망을 촉발하고, 정신과 육체가 고조되는 순간 몸은 불꽃처럼 일깨워진 육체적 쾌감 속에서 환각적 경험에 빠져든다. 이곳에서 몸은 노동하고 이성에 따라 절제하는 근대적 신체가 아니라, 약물에 취해 처음 만난 타자와 충동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고 난교에 가담하는 신체이다. 공개적 장소에서 약물에 취한 채 원초적 욕망에 몰두하는 여성의 몸은 에로틱한 관능을 극대화하며 일종의 해방적 장면처럼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의 조직은 완결되지 않는다. 트로피컬 모더니티가 구성한 공간은 겉으로는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끊임없이 균열이 발생한다. 이 균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조직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에서 비롯된다. 파티에 참여한 구소라와 양은영, 이로아의 몸은 서로 얽히며 관능적인 감각과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이들은 제주에서 작동하는 폭력적 자본의 구조로부터 분리된 위치에 있지 않다. 양은영은 피해자

17 김사과, 위의 책, 2023, 203쪽.
18 김사과, 위의 책, 2023, 208쪽.
19 김사과, 위의 책, 2023, 205쪽.

인 동시에 공범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구소라는 가해자의 제도적 동반자로서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범죄 자본의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신자유주의 질서 속 죽음 정치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지 않은 이로아 역시 이 구조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열대 제주라는 공간에서 이성애 중심의 모노가미 규범은 낱낱이 해체되고, 젠더와 독점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는 성애적 실천이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캉스'라는 한정적인 시간-공간적 틀 안에서만 허용된다.

휘스먼과 정석, 블라드가 만들어 낸 '블랙 서커스'와 요트 위의 환락이 드러내는 열대 감각은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열대의 모사에 불과하다. 블랙 서커스는 원형 무대, 에메랄드빛 조명, 코끼리와 같은 열대 동물의 이미지들을 배치함으로써 이국성과 개방성을 연출하지만, 이는 열대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 기획된 열대의 모방이다. 요트 역시 마찬가지로 열대성의 현현이 아닌, 범람하는 열대가 불러일으키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기 위해 꿈결 같은 감각으로 부유하는 인공 공간이다. 요트는 인공 조명과 음악, 마약을 통해 감각을 마비시키고, 열대의 끈적거림와 어둠, 비인간적 생명성을 밀어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난교와 향락은 이 공간에서 사회적 자유와 일탈의 표상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열대와의 접촉이 아니라 열대성을 모방함으로써 상품화된 디오라마의 형태로 재현하고자 하는 자본의 안전한 환락이다.

결정적으로 자본이 제공하는 열대성의 체험은 제주도의 환경이 아니라 마약, 블라드가 가져온 '루마니아산 암염'에 의해 구성된다. 마약을 동반한 난교는 대부분 휘발되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진 파편적 이미지들만을 남긴다. 이는 새로운 욕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난교와 마약, 광란의 파티는 자본의 '축제'로서 욕망의 불확실성과 공포를 차단하고 감각을 과잉 배치함으로써 욕망의 방향성을 관리한다.[20]

---

20 라흐만은 바흐친의 카니발 개념을 비판하며 카니발이 공식 문화에 의해 허용되는 자유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문화 체계 내부의 기능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즉, 카니발은 체제를 외부에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 긴장을 방출하고 순환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Renate lachmann, "Bakhtin and Carnivval: Culture as Counter-Culture", *Cultural Critique*, no.11,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특히 열대의 끈적거림은 이러한 균열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감각이다. 이로아는 바라던 대로 도시-서울을 벗어나 "섬"-휴양지에 도착했음에도 이 열기에 동화되지 못한다. 우울증을 겪는 이로아의 신체는 자본에 의해 조성된 '열대 제주도'의 표상과 실제 열대 사이의 어긋남이 배태하는 낙차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제주도에 도착한 이로아가 느낀 것은 산뜻한 관광지의 쾌활함이 아니라 열대성의 습기 가득한 공기가 빚어내는 '끈적거림'의 감각이다. '끈적거림'이 인간의 피부에 밀착하여 환기하는 불쾌감은 습도와 감각의 과잉을 통해 소설 속 시공간을 열대성의 색채와 감각으로 잠식시킨다. 끈적거림은 감각을 매끄럽게 분리하는 대신 서로 다른 요소들을 달라붙게 만들며 경계를 흐린다. 이는 감각을 정렬하고 분리하려는 자본의 논리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때 끈적거림은 단순한 불쾌한 감각이 아니라, 감각의 조직을 방해하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힘으로 작동한다.

열대성의 본질은 유동하는 것, 범람하고 침습하는 것에 있다.[21] '시타 델 마레'가 노정한 식민자본주의적 도시 계획에도 불구하고 열대

기후는 자본가들이 원하는 '바캉스 상품'의 재현을 초과한다. 과학기술의 총화인 AI가 관리하며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인간을 통제하는 '시타 델 마레'가 형성한 '치안(police)'의 권력 안에서도 이로아는 지속적으로 인류세의 재난으로서 도래한 열대 기후의 풍경들과 마주친다. 도시적 자본주의의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인 '자동문'을 나서자마자 이로아는 "숨막히는 열기", '관리'에 실패한 열대 식물들, 갑작스럽게 출몰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굵은 지렁이"와 흰 도마뱀의 비인간 존재들을 마주하며 "심란한 광경"이라고 느낀다.[22] '시타 델 마레'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새로운 미래, 즉 완벽한 통제 속 소시민적 행복이라는 21세기적 이상"[23]은 열대성의 기호인 태풍에 의해 무너지고, 야자수가 사라진 리조트의 모

---

pp.132-135.

21 곤잘레스-포에스터는 '열대지방화'를 갑작스러운 증식, 침수, 엉킴, 파열, 반복적인 와해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모더니티의 흔적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박지아, 앞의 글, 30-55쪽 참조.

22 김사과, 앞의 책, 2023, 91쪽.

23 김사과, 위의 책, 2023, 82쪽.

습은 “매력의 핵심이 사라”진 듯하며, “심지어 폐가처럼 느껴”지게 한다.[24] 열대성 폭풍우가 휩쓸고 간 리조트 수영장에 대한 묘사는 열대성의 위협과 공포감을 선사한다.

>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숨막히는 열기가 덮쳐왔고, 그 반작용으로 발걸음이 느려진 사이, 그녀는 문 옆에 매달린 도마뱀을 발견했다. (…) 산책로에는 심란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들이 온통 뽑히거나 꺾여 나뒹굴고 있었다. 낫으로 쳐낸 듯 날카롭게 찢겨나간 여인초 잎사귀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늘어선 레몬나무 또한 머리카락이 다 뜯겨나간 듯 흉한 몰골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바닥 여기저기에 터진 채 뒹구는 레몬 위에서 나는 시큼한 향이 흙냄새와 섞여 사방에 진동했다.[25]

통제되지 않는 열대에 대한 감각은 이로아가 떠나온 서울의 풍경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멀끔한 고층 빌딩들로 빼곡”한 서울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에너지 마켓을 침탈하고, 백인 남성 자본가이자 ‘아버지’의 이미지가 씌워진 뤼카스 휘스먼이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에너지를 착취하는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집합체다. 이로아가 불면의 밤을 보내던 서울이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를 겪고 ‘초토화’된 것은 기후 재난으로서의 열대성이 서구 모더니즘과 자본주의의 도시를 전복시키는 디스토피아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 늦은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
> 다음날, 이로아는 온종일 집에 갇혀 있었다. TV와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통신이 여러 시간 두절되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뭔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내리는 소리에, 혹이 지진이 난 듯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에 이로아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북의 야자수 하나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것이었다. 진입로를 절묘하게 막아선 자리에 떨어진 야자수 윗동

24 김사과, 위의 책, 2023, 250쪽.
25 김사과, 위의 책, 2023, 90-91쪽.

> 은 상상 속 반인반수 괴물의 머리처럼 보였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자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집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날 늦은 밤 태풍이 동해를 지나며 소멸할 때까지, 엄청난 비바람이 제주도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한편 홍수 이후 도시를 복구할 여유도 없이 다시금 물의 공격에 초토화가 된 서울의 모습이 뉴스를 가득 채웠다.[26]

이러한 감각의 교란은 열대성의 침습이라는 형태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태풍과 범람, 증식하는 식물과 비인간 존재들은 자본이 구성한 공간 질서를 외부에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다. 이들은 감각의 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인간 중심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비에 잠식된 제주도는 더는 이국의 표상이 아닌 범람하는 열대성과 충돌하는 혼성적인 장소성을 띠게 된다. 리조트의 이국적 감각을 증대시켰던 야자나무의 뿌리 뽑힘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디스토피아적 풍경을 예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폭풍우 등으로 나타나는 열대성이 도시를 정글로 덮을 수 있다는 상상을 제공한다. '시타 델 마레'의 호화스럽고 매끈한 서구 모더니티의 이미지는 통제되고 구획된 디자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열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열대는 통제되지 않는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환경이자, 서구 식민자본주의의 근대적 이분법으로 매끄럽게 완결될 수 없는 공간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정동은 더 이상 관리되는 감각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형태로 굴절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감각의 실패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정동을 발생시키는 조건임을 보여준다. 즉, 트로피컬 모더니티가 감각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정동의 흐름이 형성된다. 따라서 『바캉스 소설』에서 트로피컬 모더니티는 단순히 감각을 조직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조직이 완결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실패는 감각의 종결이 아니라 정동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며, 이후 유령의 출몰과 함께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26 김사과, 위의 책, 2023, 247-248쪽.

따라서『바캉스 소설』에서 트로피컬 모더니티는 감각을 조직하는 장치인 동시에, 그 조직이 실패하는 조건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실패는 이후 정동이 다른 방향으로 굴절되는 계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끈적이는 유령

식민자본주의가 마련한 열대 낙원의 꿈은 자연과 지역 주민들의 존재를 타자의 위치로 밀어내고 비가시화한다. 여기에는 남성-자본이 여성의 육체와 생명을 통제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권력을 행사해온 역사가 뿌리 깊게 얽혀있다. 김사과는 공간적·신체적·사회적 폭력과 범죄가 중층적으로 침투하는 공간을 통해 사회 구성원 사이에 축적된 내부적 통증과 그물망처럼 얽힌 사회적 현상들을 드러내는 한편, 여성의 몸은 남성-자본이 만든 폭력과 착취의 네트워크 속에서 경험하는 절망과 고통이 떠오르는 표면으로 그린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바캉스 소설』의 트로피컬 모더니티는 감각과 욕망을 조직함으로써 특정한 정동의 흐름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길들이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열대성의 침습과 끈적거림의 감각, 그리고 유령의 출몰 앞에서 완결되지 못하고 내부에서 균열을 드러낸다. 그 결과 감각은 더 이상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욕망의 통제는 실패하며, 정동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넘치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는 감각의 조직이 붕괴된 이후 정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지속되며, 유령이라는 형상을 통해 어떻게 가시화되고 굴절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 소설에서 열대성은 타자의 신체 표면을 형성하는 비가시화된 정동의 흐름을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 김사과는 열대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감각에 호소하지만, 열대성 자체는 특정한 물질이나 대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점에서 재현 불가능한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언어로 기능한다. 식민자본주의는 자연뿐 아니라 여성의 몸과 삶을 파괴하지만 열대를 지배하는 끈적거림의 감각과 자본의 통제를 벗어나는 존재들의 형상은 이로아의 감각의 문을 두드린다.이 지점에서 감각은 더 이상 쾌락과 흥분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감각의

흐름은 끊어지기보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며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상태가 형성된다.

그중에서도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은소라의 유령은 소설에서 난해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은소라의 유령은 이로아 앞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삶의 방향을 상실한 이로아의 앞에 나타나 길을 인도하는 은소라의 환영은 자본이 선사한 무기력과 우울, 쾌락과 환락에 중독된 여성의 감각이 유동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이로아는 은소라의 읊조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은소라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점차 은소라와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27] 이 지점에서 정동은 더 이상 관리되는 감각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형태로 굴절되기 시작한다.

은소라는 제주도 출신의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 경제적인 이유로 친정에 맡겨진, 『바캉스 소설』의 등장인물 중 유일한 제주도 출신이다. 은소라의 부모는 취업을 위해 경기도 신도시에 정착하지만, 육아에 있어 친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제주로 돌아가 식당을 열 계획을 세우지만 계약이 무산되면서 그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간다. 이때 은소라 부모의 이주는 수도권(서울)과 지방(제주)의 일자리 문제, 전세와 월세라는 한국의 경제 부동산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주도를 위대한 도시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네트워크는 자본가가 아닌 제주도민들의 삶을 비가시화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침탈한다.[28] 그런 차원에서 은소라의 죽음은 자본가들의 축제를 무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자 "축제의 숨겨진 기폭제"였던 것이다. 이는 은소라의 죽음을 대면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은소라의 형상은 초자연적 존재라기보다 제거 되지 못한

27 이로아가 은소라에게 헤어핀을 선물한 후 은소라는 이로아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마지막에 와서 이로아와 신해남을 구출하는 물리적 존재로 현현한다.

28 "높으신 분들이 지금의 제주도를 좋아한다구요. 지금의 이국적이고, 부유하고, 쿨해진 제주도를 좋아한다구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게 정석이나 휘스먼 같은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도가 좋고, 또 제주도가 계속해서 근사해졌으면 하고 바란다구요. 그러기 위해서 저 미친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눈감아줄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은소라 사건도 같은 이유로 엉뚱하게 흘러간 게 분명해." 김사과, 앞의 책, 2023, 284쪽.

정동의 잔여가 현재의 감각 속에서 지속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유령을 '불완전한 가시성'과 비대칭적 응시구조로 설명하는 데리다의 논의와도 접점을 형성하지만. 여기서 유령은 시간의 균열을 드러내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정동의 지속과 재배치를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29]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로아의 신체가 이러한 정동을 감각하는 방식이다. 김사과는 감정적인 우울을 통해 죽음으로 소외된 존재의 정동을 포착한다. 이로아의 우울증은 단순한 병리적 상태가 아니라 세계를 다르게 감각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정동은 특정한 의미로 환원되기 이전의 상태로 존재하며, 신체의 표면에서 감각과 함께 작동한다. 즉, 정동은 아직 분노나 공포와 같은 명확한 감정으로 조직되지 않은 채, 신체와 공간 사이에서 흐르는 힘으로 나타난다.[30] 이러한 맥락에서 이로아의 우울은 유령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감각적 렌즈로 작동한다. 오직 이로아의 눈에만 유령이 보인다는 설정은 이로아의 신체가 품고 있는 우울감과 죄책감의 감각이 열대 숲에 잔존한 고통의 기억과 접촉했음을 나타낸다. 이때 유령은 동일화의 대상이라기보다, 자본에 의해 소거된 존재와 기억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계기다. 유령과의 마주침은 상처 입은 신체와 기억이 현재의 감각 속으로 재진입하는 순간이며, 끈적거림은 그 접촉이 남긴 정동적 달라붙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감각의 조직이 실패한 이후에도 정동이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로아는 유령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기 자신 나아가 주변과의 관계를 변화시켜나간다. 『바캉스 소설』에서 유령과의 관계 맺기는 감정과 시선을 일방적으로 대상에게 투사하는 비대칭적 응시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로아 또한 유령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읽을 수 있다. 유령은 이로아에게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며 인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자

29 데리다의 '유령(spectre)'은 '불완전한 가시성'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시선-맞추기'가 불가능한 '비대칭적 응시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존재론적 안정성을 교란하고, 동시성을 무너뜨리며 몰시간성을 드러낸다. 이는 데리다의 유령이 선형적인 연속성에 따라 현재화되는 것이 아니라 차연의 차원에서 "언젠가는 도착할" 메시아적인 사건임을 의미한다. 이보름, 「동아시아 현대미술에 나타난 유령적 존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25, 17-20쪽.

30 사라 아메드,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16, 37쪽.

기 자신의 죄책감을 직면하고 확신에 불을 밝히도록 독려한다. 이는 자본에 의해 지워진 존재와 관계를 다시 가시화하고 단절된 접촉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이로아 역시 유령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현실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유령이 자신의 눈으로 들어오길 끊임없이 바란다. 이로아가 유령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 애착과 친밀성은 여성 스스로가 자기 확신을 형성하며 자신만의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유령과의 마주침은 여성이 자기 확신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에게 쌓인 무기력증과 우울의 원인을 추적하게 한다. 따라서 김사과 소설에서 유령의 출몰은 열대 공간의 사건 중 가장 본질적인 순간이자 초라한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 된다.

은소라의 유령은 모더니티가 매끈하게 포장하는 데 실패한 기억의 잔여로서 근대가 상정하는 이분법적 위계를 초과하는 열대성의 감각을 통해 나타난다. 리조트 안쪽에서 에어컨이 주는 서늘한 감각과 열대의 무더위가 주는 감각의 낙차는 끈적거림의 잔여를 발생시킨다. 피부 표면에 들러붙은 끈적거림의 감각은 제주도 전체에 내려앉은 불길한 분위기로서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31] 이러한 감각은 단순한 기후적 체험이 아니라 식민자본주의가 지워버린 역사적 폭력의 흔적이 몸과 공간의 표면에 남아 형성된 정동적 효과이다. 따라서 끈적거림은 감각적 불쾌를 넘어 자본주의적 재현이 제거하지 못한 기억의 잔여로 기능하며 몸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배열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끈적거림은 정동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각이 매끄럽게 흐르던 상태에서는 각각의 경험이 분리되고 정리되지만, 끈적거림 속에서는 서로 다른 감각과 기억이 뒤섞이며 남는다. 이때 정동은 특정한 대상에 귀속되지 않고, 신체와 공간 사이에 머물며 계속해서 새로운 접촉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접촉은 이로아의 신체를 매개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로아는

31 열대성은 공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서류처럼 물기로 번들번들한” 피부를 가진 혼종적 인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으로 열대성이 인간을 침습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김사과, 앞의 책, 2023, 173쪽.

끈적거림에 불쾌감을 느끼며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로 피신하고, 밤마다 어둠을 응시하는 "유령"처럼 리조트를 배회한다.[32] 서울에서 형성된 정동이 여전히 이로아의 우울증적 신체의 표면을 구성하고, 완벽하게 관리된 리조트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서울과 동질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시타 델 마레'가 행사하는 통제의 억압은 제주도에서도 여전히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다. 이로아는 모더니티와 열대성이라는 이질적인 장소성이 충돌하는 사이 공간에서 제주도 전체에 내려앉은 끈적거림을 선명하게 감각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로아가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꿈의 바깥에 펼쳐진 것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순간은 모더니티와 열대성을 가르는 자동문, 즉 문지방 위에서 감각의 낙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접촉(contact)은 모더니티와 열대성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계, 자동문의 문지방(threshold) 위이자 주변 환경과 관계 맺는 이로아의 몸 표면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3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로아의 몸은 모더니티와 열대성이 충돌하는 경계 위에서 감각의 낙차를 경험하는 표면이다. 리조트의 자동문을 경계로 형성되는 실내의 인공적 냉기와 외부의 열대 습기 사이에서 이로아는 제주도 전체에 내려앉은 끈적거림을 선명하게 감각하게 된다. 이때 접촉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몸과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동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현을 초과한 열대의 잔여는 인공적 낙원의 주변부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

32 뒷장에서 분석하겠지만,『바캉스 소설』초반부에서 이로아가 처한 삶과 죽음과 경계에 놓인 '유령'과, 이로아가 열대 제주에서 만나는 은소라의 '유령'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33 엘리자베스 그로스의 "문지방"으로서의 몸 개념은 다공성이고 끈적끈적한 몸으로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매개로서 안과 밖이 드나드는 '문지방'으로 비유한다. 몸은 안과 밖이 상호작용하는 지점이자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이 공간이다. 이때 드나듦이 가능하기 위해서 몸은 다공성(porosity) 또는 삼투성(permeability)으로 이해되는데, 구멍 뚫린 몸은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흐르는 물질, '체액'으로 재형상화된다. 이런 방식으로 형상화된 몸은 고체의 특징인 "결정에 저항한다." 살아있는 몸은 구멍을 통해 서로 다른 관계를 맺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이현재,「신유물론의 렌즈로 읽는 그로스의 육체유물론: 사회구성주의와 생물학적 결정론을 넘어서는 '몸'을 향하여」,『신유물론X페미니즘-몸, 물질, 생명』, 여이연이론, 2023, 60-67쪽에서 재인용.

다. 요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몬스테라와 빅토리아 수련의 거대한 잎사귀들이 주는 감흥은 낯섦에서 오는 공포의 정동을 불러일으킨다. 요트 위의 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열대 숲이 품고 있는 어둠은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괴물적인 생명력과 불확실성의 잠재력을 나타낸다. 요트 주변을 에워싼 어둠, 달빛 아래 번지는 습기, 몬스테라 잎이 만들어내는 과도한 그림자와 비체적인 생명성은 쾌락이 아닌 불안과 공포를 자극한다. 이 끈적거리는 분위기는 감각적 도취를 제공하기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의 정동을 몸에 각인시킨다. 이처럼 끈적이는 열대의 정동은 여성의 몸과 상호작용하며 그 표면에 달라붙고, 축적되며, 쉽게 해소되지 않는 감정의 방향성을 만들어낸다. 『바캉스 소설』에서 열대성은 관광과 여행의 대상이나 환락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과 남성의 통제 바깥에서 증식하고 그 주변을 감싸며 스멀거리는 비체화된 공포의 풍경이다. 그것은 안전한 자본의 환락 속에서도 감각할 수 있도록 이로아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열대 공간은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습기, 어둠, 비인간적 생명체의 증식과 같은 감각적 요소들을 통해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붕괴 이후의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꿈틀거리며 생동하는 존재 방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정동의 지속은 비인간 존재들의 출몰을 통해 더욱 강화되며, 정동을 가장 강하게 응집시키는 공간이 '흰 도마뱀의 숲'이다. 흰 도마뱀의 출현은 기후위기로 인해 등장한 돌연변이이자 열대성의 정동을 매개한다. 도마뱀들은 이로아와 신해남의 주변을 맴돌며 은소라의 죽음과 관련된 순간마다 출현한다. 신해남이 도마뱀을 불길하게 느끼는 것은 비인간 존재로부터 자신을 향한 시선을 감각했기 때문이다. 열대성의 정동을 상징하고 전이시키는 매개로서 흰도마뱀은 "굉장히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34]을 불러일으키며,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35] 이로아와 신해남의 주변을 맴돌며 죽은 은소라의 진실과 관계된 순간에 어김없이 출현한다. 신해남이 도마뱀을 불길하게 느끼는 것은 비인간 동물로부터 동등한 위치에서 시선을 보내는 '얼굴'을 감각했기 때문이다.[36] 이들

34 김사과, 앞의 책, 2023, 108쪽.

35 김사과, 앞의 책, 2023, 263쪽.

36 "데리다는 대체할 수 없는 응시로서의 시선을 처음 느꼈을 때 자신에 대한 질문,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를 시작한다. 데리다와 고양이의 틀을 벗어난 이 만남은 어떤 지식과 인식

은 이로아가 리조트 바깥에서 마주친 거대한 지렁이와 마찬가지로, 모더니티가 식민화하는 '자연'을 초과하는 잔여이다. 이들이 출몰하는 '흰 도마뱀의 숲'은 자본-모더니티가 포섭하지 못한 제주도의 열대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역으로 자본-모더니티를 침습하며 그들이 봉합하지 못한 틈새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들은 단순한 배경 요소가 아니라 정동을 매개하고 전이시키는 존재로서 이로아가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감각의 방향을 제시한다.

> 둘은 숲의 더욱 은밀한 곳으로 향했다. 열기와 습기가 끈끈하게 엉겨붙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투명 젤리가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듯했다. 수풀은 짙은 초록빛으로 번들거렸고, 정지한 듯 매끈하고 끈적한 대기는 벌레들의 울음소리로 터질 듯했다.[37]

이러한 정동이 특정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령이다. 『바캉스 소설』에서 은소라의 유령은 반복적으로 이로아 앞에 나타나며 서사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유령은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존재라기보다 이미 축적되어 있던 정동이 가시화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은소라의 유령은 이로아 앞에서 여자아이의 모습을 취하기도 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소리나 현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반투명하고 부유하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은소라의 유령이 어느 한 가지의 형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끈적거림의 감각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때 유령은 그저 갑작스럽게 '출몰'한 비실재의 반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제주도를 둘러싼 자본의 기획에서 타자를 향한 비체화된 감정이 물리적 배경을 넘어 감각의 '분위기'로 존재할 때, 끈적거림의 정동과 여성 육체 표면의 '자국'이 만들어낸

에 앞서 시간의 연접 밖에서 일어난다. (…)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아는 상황을 넘어서 사건은 이렇게 도래한다. 도래하는 사건과의 만남은 이처럼 친밀한 것이 낯선 것으로, 알았던 것이 모호한 것으로 발생하도록 한다." 임은제, 「생태미학적 관점에서 본 데리다의 동물 타자」,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90쪽.

37 김사과, 앞의 책, 2023, 181쪽.

공명의 울림이다. 따라서 유령과의 조우는 동일화의 환상이라기보다 공명의 사건에 가깝다. 은소라의 유령은 이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욕망과 광기에 불을 지핀다는 점에서 이로아와 감각을 주고받으며 그 안과 밖에서 현전한다.

이러한 굴절은 단절이 아니라 정동이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소되지 못한 분노는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못한 채 유령의 형상으로 파편화되어 이로아의 시선에 각인된다. 이로아가 은소라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추적해나가는 탐정'하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파편화된 분노와의 접촉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위치시키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이는 열대 공간이 여성의 기억에 각인된 분노를 호출하고, 자본에 의해 소거된 감정을 현재의 감각 속으로 되돌려 놓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울의 정동이 이로아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분노의 충동이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장면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일상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여성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충동이 아니라 사회적 억압 속에서 누적된 기억과 그에 대한 분노의 잔여에 의해 자극된다. 끈적거림의 방식으로 잠재해 있던 열대성의 은유와 유령이라는 형상은 이 분노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성의 신체에 축적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동은 점차 방향을 갖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대상 없이 떠돌던 불안과 긴장이 점차 특정한 기억과 사건, 그리고 타자를 향해 응집되기 시작한다. 반복되는 유령의 출몰은 펼쳐지는 몽환적 풍경과 어울려 의심의 지대로, 세계의 지저분한 방종의 현실로 쏜살같이 내달린다. 은소라의 시체가 위치한 버려진 불당은 열대 숲이 빙 둘러 품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곳곳에 태풍이 할퀴고 간 흔적"[38]이 남아 있다. 이 공간은 훼손된 여성의 육체와 열대의 상처가 겹쳐지는 장소로 읽힌다. 이로아가 유령의 인도에 따라 열대 숲에서 시체를 목격하는 순간은 유령과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분기점이다. 은소라의 유령은 무기력하던 이로아의 행동에 방향을 부여하고, 이후로도 이로아가 맺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는 유령이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

38 김사과, 앞의 책, 2023, 107쪽.

로아의 신체 주변을 맴돌며 접촉을 지속하는 정동적 현상이 육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아직 명확한 판단이나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로아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감각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 즉 판단 이전의 정동적 긴장이다.

여성들이 비밀을 나누고, 자본이 직조한 꿈에서 깨어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만남 역시 흰 도마뱀들이 지켜보는 열대의 숲에서 이루어진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한 '블랙 서커스'와 대조적으로 "끈끈한 어둠"이 도사리는 '흰 도마뱀의 숲'은 "새하얀 도마뱀의 까만 눈동자가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열대의 비인간 존재들의 시선과 마주치는 정동의 장이다. 이러한 공간적 대비는 여성의 신체 감각을 통해 구체화된다. '블랙 서커스'에서의 양윤영의 손이 "차가웠고, 부드러웠으며, 무게가 없"[39]었다면, 반대로 열대 숲에서 양윤영의 손은 "뜨거웠고, 부드러웠으며, 묵직"[40]하다. 숲에 들어와 진실을 고백하는 양윤영의 손이 산 자의 온기와 무게를 되찾는 장면은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이 회복된 정동을 수행적으로 가시화하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열대성을 체현하는 공간으로서 열대 숲은 은소라의 죽음을 끈질기게 기억하는 공간이자, 그 자체로 생동하는 생명력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끈적거림이라는 잠재적 형태의 정동은 여성의 신체적 감각을 통해 표면 위로 부상한다. 이러한 정동의 변화는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선택의 문제로 이행하는 계기를 형성한다.

이처럼 유령과 비인간 존재들의 출몰은 감각의 조직이 실패 이후 나타나는 정동의 재배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트로피컬 모더니티가 조직한 감각 질서가 붕괴된 자리에서, 정동은 더 이상 쾌락이나 흥분의 형태로 순환하지 않고, 불안과 공포,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긴장의 형태로 굴절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동의 변화는 곧바로 명확한 판단이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로아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감각하면서도, 이미 통제되지 않는 정동이 범람하는 상태 속에서 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는가에 놓여 있다.

39 김사과, 앞의 책, 2023, 255쪽.
40 김사과, 앞의 책, 2023, 263쪽.

트로피컬 모더니티가 감각과 욕망을 조직함으로써 특정한 정동의 흐름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길들이려 했으나 그 시도는 열대성의 침습과 유령의 출몰, 끈적거림의 정동 앞에서 완결되지 못한다. 다만 정동은 더 이상 쾌락과 흥분의 형태로 관리되지 않고, 불안과 공포, 분노와 긴장의 형태로 굴절된다. 그 결과 감각은 더 이상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동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넘치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욕망의 통제가 실패한 이후 정동이 범람하는 상태에서 '세상의 끝'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래하며, 그 상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이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굴절된 정동이 어떠한 정치적 인식과 선택의 형식으로 이동하는가 하는 점이다.

『바캉스 소설』이 제시하는 '세상의 끝'은 세계가 붕괴되는 사건이라기보다 감각과 욕망을 조직하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감각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침투하며, 현재와 과거, 쾌락과 공포,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흐려진다. 세계는 하나의 안정된 구조로 인식되지 않고 서로 다른 정동들이 뒤엉킨 채 지속되는 장으로 변한다. 이때 '세상의 끝'은 종결이 아니라 지속이다. 질서가 무너진 이후에도 감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를 구성한다. 오히려 그 작동 방식은 더욱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바캉스 소설』은 파국 이후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파국이 이미 도래한 상태에서 감각과 정동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동의 범람 속에서 이로아의 분노는 점차 특정한 대상과 형상을 획득하게 된다. 『바캉스 소설』에서 꿈은 상실된 기억의 재현과 이미지의 과잉이 교차하며 꿈과 현실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호출되는 로베스피에르와 태양왕의 표상은 이로아가 혁명가의 위치를 상상적으로 점유하며 태양왕의 얼굴을 한 뤼카스 휘스먼과 대립하는 서사적 구도를 형성한다. 꿈 속에서 프랑스 혁명을 재현하고자 하는 이로아는 스스로도 '자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다른 민중들을 선동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다시 말해 이로아를 휘감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압제하는 아버지-권력, 곧 자본과 지배의 질

서를 향한 분노이며, 로베스피에르의 표상은 이 분노가 '심판'이라는 정치적 형식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로베스피에르의 호출은 단순한 역사적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굴절된 정동이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서사적 형식을 찾는 과정이며, 이로아가 자신을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나 감각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어떤 결단의 주체로 상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이 곧바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력의 형식을 반복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의 이름으로 또 다른 통치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처럼, 『바캉스 소설』에서 '심판'의 상상력 역시 자본주의 질서와 단절된 외부라기보다 그 질서가 허용하는 주권적 폭력의 형식을 다시 끌어오는 데 가깝다.

> "이 곳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유령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유령이니까. 아무도 죽음에 관심 갖지 않아요. 모두 어차피 이미 다 죽은 거니까. 삶과 죽음의 차이가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살아 있지 않고 아무것도 죽어 있지 않아요. 그런 세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마치 끝나지 않는 여름처럼."[41]

자본이 만들어 낸 제주도는 "끝없는 여름의 섬"으로서 현실의 열대적 순간을 포착해 재현하는 디오라마이며, 그 안의 인간들은 삶과 죽음의 구분이 무의미한 유령, 산 채로 죽은 자인 산송장(living dead)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소라는 오직 이로아에게만 목격될 수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반투명한 은소라의 형체를 목격한 후에도 이를 외면한다. 정의에의 요청 앞에서 침묵하거나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점에서 이로아를 제외한 이들은 살아 있으되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는 존재들인 것이다. 이런 제주도에서 은소라의 존재를 받아들인 이로아는 무기력증에서 탈출하는 동시에 광기를 흩뿌리는 존재로 전화한다. 이로아가 발견한 "은소라의 시체 이미지"는 욕조에서 발견한 "거대한 바퀴벌레"와 병치되는 "끔찍한 이미

41 김사과, 앞의 책, 2023, 184쪽.

지"로 묘사된다.[42] 은소라의 시체 이미지는 이로아의 삶 자체에 침투하고 물들이면서 사회적 관계 전체를 재구성한다.[43] 이러한 방향은 이로아로 하여금 은소라를 향해 다가가게 함으로써 둘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고, 은소라의 죽음에 응집되어 있던 '끈적거림'의 정동은 그 죽음을 추적하는 이로아의 몸에 달라붙으며 새로운 표면을 형성한다.[44] 그 결과 주변 인물들은 이로아로부터 '광기'를 읽어내며, 초자연적 현상이나 음모론에 집착하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45]

이로아의 분노는 점차 특정한 대상과 책임의 형상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심판'이라는 행위로 응집된다. 이로아가 "마녀"라고 믿었던 동경의 대상조차 타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자본이 기획한 축제에 포섭된 또 다른 희생양이자 구조적 공범이었음이 드러나고, 열대 숲에서 이루어진 양은영의 고백과 뤼카스 휘스먼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은 이로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던 중 이로아는 양은영이 살해당하게 되면서 뤼카스 휘스먼이야말로 "모든 악행의 원흉"이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이로아는 로베스피에르의 자리에 보다 가까워진다. 이로아와 로베스피에르 사이의 연결은 정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다 부각되는데, 정석은 어린 시절부터 이로아와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를 존경했으나 자본가인 뤼카스 휘스먼의 곁에 선 인물이다. 반면 이로아는 양은영이 바란 대로 구권력을 '심판'하는 주체자가 됨으로써 로베스피에르의 위치에 선다.

이 '심판'은 질서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결정적 행위라기보다, 이미 흘러넘친 정동이 특정한 형식으로 응집된 결과에 가깝다. 이로아의 갑작스

---

42 김사과, 앞의 책, 2023, 115-116쪽.

43 사라 아메드, 앞의 책, 212쪽.

44 역겨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거부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끈적이는 것이 역겨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경계가 없는 대상에 흡수되는 일이 사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위협적이게 되는 것이지, 끈적임이 본질적으로 역겨운 것은 아니다. 사라 아메드, 앞의 책, 190-191쪽.

45 "그래, 돌았다. 그래, 내가 완전히 돌았다고 쳐.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안 궁금해? 그게 다 저 사람들 때문이라구! 왜 그걸 몰라줘요? 저 사람들이 먼저! 나를 돌게 만든 거라구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쪽이 더 미친 거라구! 진짜는 저쪽이라구!" 김사과, 앞의 책, 2023, 286쪽.

러운 전화(轉化)는 이로아가 억압하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에서부터 이로아가 떠올리던 꿈결의 조각들과 양은영을 향한 감정의 떨림은 이로아가 품고 있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것은 신과 아버지의 표상을 담지한 '태양왕' 루카스 휘스먼의 처형하는 혁명을 통해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제주도에 도착한 이로아는 은소라에 얽힌 진실을 좇으며 은소라에게 가까워지는 과정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가까워진다. 이렇듯 이로아의 행위는 억압적 질서를 끊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을 반복한다. 지배를 끝내기 위한 폭력은 또 다른 형태의 지배로 이어지며, 해방의 순간은 곧바로 소유와 통제의 욕망으로 전환된다.

이때 '심판'은 정치적 선택이라기보다 범람한 정동이 주권적 폭력의 형식으로 조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문제는 저항의 부재가 아니라 저항이 어떤 형식으로 조직되는가에 있다. 이로아는 제주도에서 줄곧 양은영과 구소라를 향한 열망을 드러내며, 제주도에 오게 된 계기 역시 양은영을 향한 동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시된다. 또한 서사 속에는 구소라의 외모를 찬미하는 묘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이로아가 구소라와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며 자조하는 장면도 나타난다. 반면 신해남과의 관계는 양은영과 구소라의 성적 관계를 상상하는 환상 속에서 이로아가 신해남의 목을 조르고 있고, 신해남이 아니라 그의 페니스를 떠올리며 자위를 하는 장면으로 양은영과 구소라에 비해 제한적이다. 이러한 서사적 배치는 이로아의 욕망이 남성 인물보다는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동이 흘러넘치는 상태에서 그것은 반드시 방향을 갖게 되지만, 그 방향이 곧바로 체제의 외부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동은 기존 질서의 형식을 변형된 형태로 반복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양은영과 구소라에 대한 이로아의 욕망은 어머니의 존재를 경유하여 감각된다. 부동산으로 자본 세계에서 성취를 이룬 이로아의 어머니는 이로아에게 '자본'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감각시키는 존재다. 이로아는 양은영과 구소라를 볼 때면 '어머니'의 위치에 그들을 대입시킨다. 서울에서부터 양은영을 따르던 이유도 '이상적인 어머니'[46]라고 느꼈기 때문이고, 양은영이 자신과 같은 자본의 '노예'

46 "휘스먼 사장님은 달랐어요. 제가 꿈꿔오던 아버지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멋지고, 스마트

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욕망은 구소라에게 전이된다.[47] 서울에 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로아의 바람은 이로아가 서울을 떠나 자본의 세계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욕망이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낸다.[48] 이로아가 열대 숲의 유령을 향해 '다가갈수록' 이로아에게 묶여 있던 정동적 사슬은 깨어지게 되고, 어머니에 대한 미움 또한 사라지게 된다. 이는 이로아가 다른 여성들을 향해 품는 욕망이 더 이상 어머니를 경유해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아의 정동적 에너지는 은소라의 유령이나 열대를 향한 경이(驚異)가 아니라,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자본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오이디푸스적 욕망에서 온다.[49] 이로아가 뤼카스 휘스먼과 정석을 '심판'한 후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정석의 아내였던 구소라를 보며 "이 아름다운 여자가 이제 나의 노예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처형하고 '아버지'의 위치를 대체하는 로베스피에르는 새로운 권력의 주체가 됨으로써 체제 질서를 재생산한다. 처음부터 글로벌 신자유주의적 자본 질서의 노예였던 이로아는 구소라, 양은영과 마찬가지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이로아는 양은영이 바랐던 대로 '심판'과 '삶이라는 게임에서의 승리'를 성취하고 바라던 대로 자신을 묶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느끼지만, 이로아가 도달

하고, 카리스마 있고, 사악하고… (…) 한편 선생님은 이상적인 어머니 같다고 느꼈죠. 세련되고 현명한… 나의 소중한 마약 딜러." 김사과, 앞의 책, 2023, 259쪽.

47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가장 밉고 싫다 (…) 그리고 문득, 구소라 같은 여자가 어머니였다면 자신의 인생은 정말이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그렇다면 알고 싶다. 구소라가 어떤 여자인지." 김사과, 앞의 책, 2023, 176쪽.

48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일관된 메시지를, (…) 어쩌면 그게 자신이 느끼는 공허감의 원인이 아닐까"; "서울이 진짜 싫어! 그 도시와 관련된 모든 게! 그 흉하고 (…) 저주받은 도시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좋겠어!" 김사과, 앞의 책. 2023, 71; 175쪽.

49 "혁명적인 것은 욕망이지 축제가 아니다! 또한 어떤 사회라도 참된 욕망의 정립을 허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착취, 예속, 위계의 구조가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 성욕과 사랑은 오이디푸스의 침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넓은 곳을 꿈꾸고 기성 질서 속에 저장되지 않는 낯선 흐름들을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욕망은 혁명을 〈바라지〉 않는다. 욕망은 그 자체로, 저도 모르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바람으로써 혁명적이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안티오이디푸스』, 민음사, 2014, 208쪽.

한 곳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 아니라 소멸로 귀결되는 “세상 끝”의 감각이다. 알록달록한 색채 이미지들로 물들어 꿈결을 연상시키는 이 미학적인 공간은 서울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던 이로아가 몽상하던 환상이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영원할 것이라 확신”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끝”의 풍경은 이로아를 속박하던 견고한 현실의 질서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미 도래한 멸망과 우리는 멸망 이후를 살아가야 한다는 세기말적 이미지에 가까워 보인다.

『바캉스 소설』은 섣부른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또 다른 주권적 질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주의 질서가 붕괴된 순간을 지속시키고 지금-여기의 현실에 대한 윤리적 사유를 요청한다. 김사과의 이전 작품들에 등장한 인물들과 달리, 이로아는 자신을 억압하는 체제의 ‘원흉’이자 ‘적’을 비교적 명확하게 발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식민자본주의 체제의 책임을 뤼카스 휘스먼이라는 자본가 개인에게 대속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이 점에서 김사과는 식민자본주의 구조에서 서구 제국주의 가부장 권력의 윤리적 책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그들을 ‘심판’하는 것만으로는 인류세 시대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정치적 가능성은 ‘심판’의 형식이 아니라, 질서를 교란하는 다른 형식으로 이동한다. 그 가능성은 ‘심판’이 아니라 ‘마녀’의 형상 속에서 발견된다. 이로아가 은소라를 향해 다가감을 통해 이로아의 몸 표면에 달라붙은 부정적 감정들은 이로아를 “축제를 망치는 마녀”의 표상으로 이끌었다. 갓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이로아를 괴롭히는 것은 자본과 젊음을 누리는 다른 자본가-관광객들을 향한 질투의 감정과 스스로를 향한 자괴감이었다. 이로아는 “달라진 제주도의 축제 같은 라이프 스타일”에 합류하지 못하는 자신의 “타고난 부적응자”의 운명을 자조한다. 은소라의 유령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닐지, 자신이 “루저”, 음모론에 빠진 미친 여자로 보이는 것이 아닐지 번민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마녀”로 정체화한다. ‘마녀’는 근대적 이성의 심판에 의해 희생당하고 배제된 이들의 이름이다. 체제 속에서 축제를 정지시키고, 광기를 흩뿌리며, 질서를 교란하는 존재이자 이전에 죽임당한 ‘마녀’들의 이름을 잇는 존재다. 자본가들의 축제를 망치는 ‘마녀’의 형상은 정서적 이방인이자 행복의 기호 아래 감춰져 있

는 권력과 폭력의 형식들에 맞서는 "분위기 깨는 페미니스트(Feminist Killjoy)"로서의 실천을 나타낸다.[50] 차별과 폭력을 지적하는 순간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낙인찍히지만, 바로 그 불편함을 통해 기존의 질서를 가시화하고 교란하는 페미니즘적 주체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마녀의 형상은 통제되지 않는 정동이 세계를 교란하는 방식 그 자체를 드러낸다. 이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정치라기보다 질서의 표면을 흔들고 그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는 정동의 작용에 가깝다.

김사과의 인물들이 도달하는 '세상 끝'의 감각은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멸망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에 가깝다. 식민자본주의의 구조를 파괴하더라도 인류세의 시대는 도래했고, 이미 사라진 관계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폐허 위에서 삶을 지속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김사과의 서사는 글로벌 식민자본주의적 현실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정동과 관계 맺음의 방식들을 통해 체제의 균열을 감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 예시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오히려 자유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는 이로아의 감각은 자본이 제공하는 환락이 욕망을 해방시키기보다 관리하고 소진시키는 장치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때 열대의 광란은 전복의 가능성이라기보다 모더니티의 충격이 만들어낸 과잉 자극을 향유 가능한 체험으로 재배치하는 정치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열대는 식민적 재현이 만들어낸 이미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자연은 관광 자본주의가 구성한 열대적 환상을 넘어서면서, 인간의 신체와 정동을 교란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바캉스 소설』에서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범람해버린 정동의 상태 속에서 세계가 어떻게 지속되는가에 놓여 있다. 이 작품에서 정치적 가능성은 결단이나 주권의 형식에 있지 않고, 감각과 욕망을 조직하는 질서의 리듬을 간섭하고 그것을 어긋나게 만드는 정동의 운동 속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캉스 소설』의 열대성은 하나의 배경이나 상징이 아니라 욕망의 통제가 실패한 이후 정동이 범람하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세계를 어떻

50 사라 아메드, 성정혜, 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110-160쪽 참조.

게 재구성하는지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조건이다. 이 소설은 새로운 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지만 감각과 정동의 층위에서 세계를 다시 사유하도록 요구하며, 그 요구 자체를 하나의 미완의 정치적 가능성으로 남겨둔다.

5 세상의 끝

이 글은 김사과의『바캉스 소설』에 나타나는 열대 공간을 식민적 관광 자본주의가 구성한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몸과 정동이 서로 얽히는 관계적 장으로 읽고, 이러한 열대성이 '끈적거림'의 정동을 통해 억압된 여성의 기억과 욕망을 표면화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김사과 소설에서 열대 공간은 여성 인물들이 기존 질서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 맺는 장소로 나타난다. 이때 열대에서 경험되는 숭고함은 낭만주의적 자연 숭배라기보다 강렬한 감각과 색채,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정동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 각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세계와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도록 만든다. 열대는 공포와 불안이 도사린 낯선 공간이지만, 동시에 여성 인물들이 몸의 감각을 통해 살아 있음을 다시 느끼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바캉스 소설』에서 김사과가 구성한 트로피컬 모던 공간은 이러한 감각적 해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장이라기보다, 여성의 욕망과 충동,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정동의 흐름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길들이려는 장치로 기능한다. 기후 위기가 도래한 근미래의 열대 제주는 트로피컬 모더니티의 특징을 지닌 초현실적 공간으로 구성되며, 글로벌화된 도시의 시공간적 특성과 생태적·사회적 위기가 교차하는 혼성적 시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은 감각의 과잉과 자유로운 쾌락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욕망의 방향을 유도하고 반복시키는 통제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의 조직은 열대성의 침습과 끈적거림의 정동, 그리고 유령의 출몰 앞에서 끝내 완결되지 못한다. 열대의 열기와 습도, 끈적거림에 몸을 맡기는 순간 여성은 억압된 정동과 자신의 욕망을 감각하고 분출하게 되며, 이때 정동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범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들이 자신이 속한 세계와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도록 만들며,

동시에 감각과 욕망을 조직하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바캉스 소설』이 제시하는 '세상의 끝'은 세계가 붕괴되는 사건이라기보다, 욕망의 통제가 실패한 이후 정동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넘치며 지속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감각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침투하며, 쾌락과 공포, 현재와 과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흐려진 채 공존한다. 즉, '세상의 끝'은 종결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정동이 세계를 계속해서 구성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김사과 소설에는 퇴폐적 감각과 자본에 대한 낭만성이 뒤섞여 나타나며, 이로아가 프랑스 혁명의 낭만적 이미지에 매혹되는 서사는 세계와의 대립을 중산층적 낭만의 형식으로 재현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심판'의 형식은 억압적 질서를 끊어내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즉, 이로아의 선택은 새로운 질서를 열어젖히기보다, 범람한 정동이 특정한 방향으로 응집된 하나의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바캉스 소설』은 여성의 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위계화하거나 여성을 센티멘탈하거나 광기에 찬 존재로 묘사해온 기존의 재현을 거부한다. 아메드가 말하듯 페미니스트 주체의 '분노'는 단지 과거에 머무르는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동시에 '경이'는 세계와 맺는 정동적 관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감춰졌던 역사성을 드러내며 몸을 열고 세계를 확장시키는 힘으로 작동한다.[51] 이러한 맥락에서 김사과 소설에서 열대성은 '끈적거림'의 정동을 매개로 여성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분노의 감정을 촉발·증폭·전이시키며, 억압된 욕망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장으로 기능한다. 감정은 내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표면에 남아 서로 다른 몸들이 접촉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정동적 관계의 계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접촉 속에서 인물들은 서로의 고통과 상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바캉스 소설』은 이미 균열이 시작된 세계 속에서, 통제되지 않는 정동이 서로 다른 몸들 사이를 오가며 관계를 다시 구성해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51 사라 아메드, 앞의 글, 2023, 367-387쪽.

그 균열 위에서 여성들의 기억과 분노, 욕망은 서로에게 들러붙으며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더듬어 나간다. 이러한 가능성은 완결된 대안으로 제시되기보다, 감각과 욕망을 조직하는 질서의 리듬을 어긋나게 만드는 정동의 운동 속에서 미완의 상태로 남는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사과,『바캉스 소설』, 문학동네, 2023.

김사과,『더 나쁜 쪽으로』, 문학동네, 2017.

단행본

이종관,『공간의 현상학, 풍경 그리고 건축』, 성균관대출판부, 2012, 158쪽.

김남이, 이현재, 임소연, 이지선, 박신현, 심귀연, 박이은실, 김지은『신유물론X 페미니즘-몸, 물질, 생명』, 여이연이론, 2023, 60-67쪽.

조현준,『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한국학술정보, 2007, 220-222쪽.

사라 아메드,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행복한 대상」,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정동이론: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갈무리, 2015. 57쪽.

사라 아메드, 시우 역,『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198-202쪽.

사라 아메드, 성정혜 이경란 역,『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110-160쪽.

스테판 G. 메트로비치, 박형신 역,『탈감정사회』, 한울아카데미, 2014, 12쪽.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안티오이디푸스』, 민음사, 2014, 208쪽.

Ido Ben-Ami, “Emotions and the sixteenth-century Ottoman carnival of animals”, *Interspecies Interactions*, London: Routledge, 2018, pp.17-33.

논문

김미현,「분노의 문학과 정념기호학-김사과의『미나』를 중심으로」,『기호학 연구』제44권, 한국기호학회, 2015, 87쪽.

박지아, 「도미니크 곤잘레스-포에스터의 ‘트로피컬 모더니티(Tropical Modernity)’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6-55쪽.
이보름, 「동아시아 현대미술에 나타난 유령적 존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17-27쪽.
임은제, 「생태미학적 관점에서 본 데리다의 동물 타자」,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90쪽.
최미옥, 「제프리 바와 ‘트로피컬 모더니즘’ 건축을 통한 현대 건축의 미래지향」,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제91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25, 15-54쪽.
한아름, 「『트로피컬 모던』 리조트 디자인에 공간 디자인 특성 및 표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2-30쪽.
Renate Lachmann, “Bakhtin and Carnivval: Culture as Counter-Culture”, *Cultural Critique*, no. 11,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pp.132-135.

Abstract

Tropical Modernity and the Affects of Stickiness:
The Spatial Politics of『Vacation Novel』

PIAO YUEXIANG

At the moment when humidity, heat, smell, and color adhere to the surface of the body, the space ofVacation Novelemerges not as mere nature but as a field where sensation and desire are organized. This article conceptualizes such a tropical space as “tropical modernity,” constructed by colonial tourist capitalism, and examines how it operates as a mechanism that arranges and regulates women’s desires and impulses into manageable forms. However, this order ultimately fails to reach completion as it encounters the intrusion of tropicality, the sticky affect of humidity, and the appearance of ghosts, thereby revealing internal fractures. In the collapse of sensory organization, affect does not disappear but overflows, refracted into anxiety, fear, and anger, and the world can no longer be sustained as a stable system of meaning. At this point,

the female body functions as a surface of contact where sensation and affect intersect, a site that perceives the rupture of order while also mediating the persistence of affect beyond control. Ultimately, Vacation Novelinvites us to reconsider how the world endures after the failure of desire's regulation, within the ongoing flow of affect.

Key words: Tropicality, Tropical Modernity, Stickiness, Affective Space, The End of the World, Ghost, Desire

논문제출 / 2026.02.28.
논문접수 / 2026.03.18.
게재확정 / 2026.04.09.